

신생팀 김포에 일격 맞은 광주FC

K리그2 개막전 홈경기 1-2 패 이정효 감독 데뷔전서 '쓴맛' 전남도 안양 원정경기 0-1 패

‘승격’에 도전하는 광주FC가 첫 경기에서 쓴 보약을 마쳤다.

광주는 지난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1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1-2패로 졌다.

2부리그에서 승격에 도전하게 된 광주는 ‘신생팀’ 김포에 털미를 잡히면서 패배로 2022시즌을 열었다. 아쉬운 패배에도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반 8분 김포 권민재의 슈팅에 가슴을 쓸어내렸던 광주가 전반 16분 역습 상황을 만들었다. 페널티 지역으로 전진하던 헤이스가 김태환과의 몸싸움 도중 넘어지면서 경고 카드를 이끌어냈다. 이어 엄지성이 프리킥 키퍼로 나서지만 수비벽에 막혔다.

전반 27분 광주 골키퍼 이준이 권민재의 터닝 슈팅을 막아냈지만 33분 첫 실점을 기록했다.

손석용의 오른쪽 슈팅이 나왔고, 이준이 몸을 날렸지만 공에 미치지 못했고 2022시즌 K리그 2 1호골이 장식했다.

전반 종료 직전 프리킥 상황을 맞은 광주가 이순민의 헤더까지 연결해졌지만 골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후반 17분 이상기와 하승운을 대신해 두현석과 이건희를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꾼 광주는 후반 22분 아쉬운 탄성을 내질렀다. 엄지성이 이건희의 패스를 받아 원반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 이상욱에게 막혔다.

그리고 후반 24분 광주가 두 번째 실점을 기록했다. 문전에 있던 김중석이 왼쪽에서 길게 올라온 크로스를 받아 오른쪽으로 광주 골대를 갈랐다.

이정효 감독은 후반 32분 안영규와 정호연을 대신해 이요담과 김중우를 투입해 전력을 재 정비



광주FC의 이건희(왼쪽)가 지난 19일 홈에서 열린 K리그2 2022 김포FC와의 개막전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했다.

후반 34분 프리킥 상황에서 김중우가 띄운 공이 엄지성 머리에 닿지 못했고, 39분에는 두현석이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아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광주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42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뺏은 이건희가 공을 몰고 중앙으로 전진, 오른쪽으로 포물선을 그렸고 1-2가 됐다.

후반 추가 시간에 김포 김태환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는 점했지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는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간 것 같다. 찬스도 잘 만들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또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데 지더라도 원하는 축구를 지향할 것이고, 상대를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도 안양FC와의 개막전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 19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의 K리그2 2022 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1로 졌다.

승점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새로운 전남의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전반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높이며 공세에 나선 전남은 주장 김현욱의 볼 소유와 패스 그리고 박인혁, 플라나의 측면 돌파로 안양 수비진을 괴롭혔다.

전남은 후반 시작과 함께 발로테리와 정호진을 투입하면서 공격 수위를 높였지만, 후반 8분 조나탄에 실점을 했다. 실점 전 드림볼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남은 달랠진 공격력은 보여졌지만 끝내 만회골을 넣지 못하고 0-1 패배로 개막전을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돌아온 ‘손케 듀오’

손흥민-케인, 맨시티전서 36번째 골 합작...EPL 역대 최다 타이



20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2021-2022 EPL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6호골을 합작한 손흥민(왼쪽)과 케인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2도움 토트넘 3-2 승

부진에 빠졌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믿을 구석이 역시나 손흥민(30)-케인(29) 듀오였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2021-2022 EPL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멀티 도움과 케인의 멀티골, 대안 클루세브스키의 1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3-2로 이겼다.

리그 3연패로 고전하던 토트넘은 ‘선두’ 맨시티를 제물 삼아 연패 고리를 끊어냈다.

더불어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 듀오의 부활이라는 수확을 얻었다.

EPL 최고의 콤비로 꼽히는 손흥민과 케인은 지난 시즌에만 리그에서 14골을 합작하며 무서운 정도의 호흡을 보여줬다.

이들은 1994-1995시즌 블랙번 로버스에서 13골을 함께 만든 앨런 시어라-크리스 서턴의 ‘EPL 단일 시즌 최다 합작 골’ 기록을 26년 만에 새로 썼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둘의 ‘케미’ (케미스트리-궁

합)가 다소 잠잠했다.

손흥민과 케인의 2021-2022시즌 정규리그 합작 골은 지난해 10월 18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8라운드에서야 처음으로 나왔다.

이후로 다시 볼 수 없던 이들의 합작 골은 4개월 만인 이날 맨시티와 26라운드에서 드디어 터졌다. 팀이 1-1로 맞선 후반 14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올린 정확한 크로스를 케인이 문전에서 마무리해 추가 골을 터트렸다.

이 골은 2015-2016시즌부터 함께한 손흥민과 케인이 EPL에서 합작한 통산 36번째 골이다.

손흥민-케인 듀오는 이로써 이 부문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던 프랭크 램퍼드-디디에 드로그바(36골·헬시)와 타이기록을 썼다.

케인은 경기 뒤 영국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우리는 많은 준비를 했고, 정말 잘 맞았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스카이스포츠를 통해 “케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선수이자 사람이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귀인’ 만난 김호령 “올해 제대로 호령해 볼까”

KIA 합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귀인’(貴人) 만난 김호령, 올해는 다를까? KIA 타이거즈의 김호령은 매년 ‘기대의 이름’이었다. 리그에서도 손꼽는 수비 실력을 갖춘 그는 매년 폭발적인 타격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꾸준함이라는 숙제와 함께 김호령의 시즌은 아쉬움으로 끝나곤 했다.

올 시즌 김호령은 나성범이라는 귀인을 만났

다. 지난 겨울 챔피언스필드에서 개인훈련을 하면서 친해진 두 사람은 이번 스프링캠프에서는 아예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다. ‘성실함’으로 통한 두 사람, 김호령은 놀라운 속에 배움을 얻고 있다.

김호령은 “예전처럼 똑같이 훈련하고, 웨이트도 많이 하고 잘 지내고 있다”며 “성범이 형과 룸메이트다. 형이 힘이 세니까 같이 따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이 좋아지는 같다. 웨이트 파트너가 생겨서 좋다. 완전 괴물이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걸 들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무게를 쉽게 든다”고 말했다.

또 “마인드가 다르다. 노력을 엄청 한다. 딱 봐도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옆에서 더 실감 난다. ‘엄정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엄청 열심히 했구나’

룸메이트 나성범과 함께 훈련 장점 배우며 타격에 힘 실려 이범호 코치 지도도 큰 도움 “경쟁 뚫고 풀타임 뛰고 싶어”

라는 것을 느낀다.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범이 형 보면 ‘내가 했던 게 열심히 한 게 아니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더 같이 하려고 따라 하고 아간에도 거의 붙어서 훈련한다”고 이야기했다.

KIA에서 소문난 연습 벌레 김호령도 놀라게 만든 나성범, 타격에서도 힘이 되고 있다.

김호령은 “타이밍 잡는 법과 어떤 느낌으로 치는지 주로 타격을 많이 물어보는데 잘 알려준다”며 “바깥쪽을 칠 때 밀리는 느낌인데, 찍어친다는 느낌으로 하면 좀 더 바깥쪽을 때릴 수 있다고 말해줬다. 그런 식으로 쳤는데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1군 타격 코치를 맡은 이범호 코치도 ‘귀인’이다.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만큼 김호령을 잘 아는 이 코치는 지난해 퓨처스 총괄코치를 하면서 타격

지도도 해줬다.

김호령은 “이범호 코치님하고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타이밍 잡을 때 급한 게 있어서 한발 빠르게 여유 있게 잡으라는 말씀해주셨는데 도움이 됐다”며 “매년 ‘타격 잘하면 주전이다’는 말을 듣는데 잘하고 싶다. 성범이 형한테 많이 배우려고 하고 코치님하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사령탑 김중국 감독이 수비와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점에서도 올 시즌은 김호령에게 기회다.

김호령은 “감독님께서 주루 코치하실 때 주루가 괜찮다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자신 있다. 수비도 자신 있어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며 “많이 나가서 도루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치고 싶은 경향이 있어서 삼진을 많이 당하는데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격과 함께 ‘부상’도 김호령에게는 숙제다.

김호령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중요한 때 부상이 많았다. 배변을 바꾼 것도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잘하고 싶어서 메이저리그에서 좋아하는 마이크 트라웃의 27번을 달았다”며 “올해 경쟁을 뚫어서 풀타임을 뛰고보고 싶다. 그게 목표다. 또 안 다치고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호령

KIA 5차례 연습경기 생중계 구단 공식 유튜브 ‘갯티비’로



KIA 타이거즈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생중계한다.

KIA는 오는 23일 합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열리는 자체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5차례 연습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연습경기는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갯티비’를 통해 방송되며, 5대의 카메라가 투입된다.

23일에는 장정석 단장이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폭 넓은 시각으로 경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자체 연습경기는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되며, 광주에서 26·27일, 3월 8·9일 진행되는 한화와 연습경기는 오후 1시에 개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3관	해적: 도깨비 깃발
4관	언차터드
6관	극장판 주술회전 0
9관	나일 강의 죽음
7관 새씨네	킹메이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2022.03.03.(목)-04.(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2.03.25.(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